



1. 활력 있는 도시
  1.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1. 조화로운 도시
  1. 특색 있는 도시
- 제업정발광  
경산시개관  
역단지역화  
지침복지문  
능근근근근  
있하하하하  
력약약약약  
활도도도도

## 2006 사천항공우주 엑스포 준비 박차

시는 '2006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도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국산 고등훈련기인 KT-1에 이어 T-50기를 생산하여 세계적 항공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첨단 항공우주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시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인근지역의 공군교육사령부, 경남항공고등학교와 국내 항공업체 83개사 중 51개사가 경상남도에도 소재하는 등 전국 생산의 7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50%이상이 사천시가 차지함으로써 물적·인적 항공우주의 네트워크는 물론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과 항공산업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항공우주인프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시에서는 항공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우리나라가 2015년 세계항공산업국 10위권내 진입의 견인차적 역할과 세계항공우주엑스포로 거듭나기 위하여 매년 10월에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는 46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고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도시이며 항공우주의 요람임을 과시하였고, 사천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하늘에어쇼와 항공우주체험 사천에서 올해 3회째,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사지방산업단지 일원에서 개최

올해 3회째 열리는 엑스포는 1, 2회 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체계적인 운영과 민·관·군·산·학이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 '사천비상-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사천시 진사지방 산업단지 일원에서 '스릴과 파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하늘 에어쇼와 환상적인 항공우주체험'의 2006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열리게 된다.

주요행사로는 항공우주에어쇼 분야로서 공군 블랙이글의 공중곡예비행과 KT-1, T-50의 시범비행, 루마니아호크의 경비행기 곡예, 민관군 항공전력의 공중곡예와 참가항공기의 전시 등과 제6회 대통령배 스카이다이빙대회 및 시범, 제6회 대통령배 초경량항공기 대회, 대통령배 열기구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등 각종 항공관련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항공우주체험분야에서 우주전시 및 체험, 열기구 탑승, 사이버항공 조종교실, 물로켓 발사체험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전국 인라인 스케이트대회, 전국마라톤대회, 사천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발전전략 심포지엄 및 투자유치설명회, 공군 군악대 축하연주회 등과 공식행사인 전야제 및 개막식과 각종 무대 공연이 화려하게 열리게 된다.

시는 올해 성공적인 항공우주엑스포를 위하여 7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6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부산 벡스코 축제박람회와 고성 공룡엑스포 행사장에 홍보관 설치 운영과 각종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전락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항공전력 확보를 위하여 공군본부, 경찰청, 항공관련 협회 기관단체 등 협의를 거쳐 참가항공 전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엑스포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2006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업무에 돌입하고 있다.



## 정의의 불사조 '루드베기아'

원화사업으로 씨를 뿌린 루드베기아, 주말 꽃잎들이 떨어지기 전에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꽃들의 아름다운 향연을 구경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초여름 야생화처럼 피어오르는 '루드베기아'가 진사산업단지내에 노란 옷을 입으며 활짝 피어올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 97년도 국토공사진제공/곽동진·기획담당관실

## 인사 올립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12만 사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사천시의 살림살이와 미래의 실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시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책임자로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선 후 친히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따뜻한 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남해안 최고의 문화·예술·체육·관광도시로 가꾸어 가는 등 장차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 나아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중심지로 당당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3일

사천시장 김수영

## 김수영 사천시장의 10대 실천약속 => 2면



## 희망찬 민선 4기의 사천시정을 이끌어 갈 주역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영광의 얼굴들의 당선증 수여식이 지난 달 2일에 있었다. 앞으로 이들은 사천시와 사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각오하면서 기념촬영에 임하였다.

## 제5회 사천시 삼천포항 전어축제 8월 2일(수)~6일(일) 5일간

- ▶장소 : 서금동 팔포매립지 일원
- ▶주최 : 삼천포포항포항사 번영회
- ▶주관 : 삼천포항 전어축제 추진위원회
- ▶행사내용 : 길놀이, 사물놀이, 전어요리 맛있게 먹기 대회, 전어/황어 잡기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등

## 무지개 언덕, 빛의 터널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축제

## 2006 삼천포대교 야경 축제 8월 11일(금)~13일(일)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大賞)에 빛나는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서 시민은 물론 피서객들에게 올 여름 더위를 잊게 할 '2006 삼천포대교 야경축제'가 개최된다. 한국예총 사천시지부가 주최하고 예총회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8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3일간 매일 밤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11일은 신명나는 타악공연으로 문을 연 뒤 재즈밴드, 발리댄스 등과 함께 유명

가수 초청공연으로 한여름밤 문화의 향연이 마련된다.

또한 이날 밤 10시경에는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12일 밤 10시경에는 모터페라 불꽃 쇼가 열려 삼천포대교의 야경과 더불어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둘째 날에는 국내 최고의 B-boy팀의 재즈댄스와 현대무용, 재즈밴드, 대중가수 초청공연 등이 열려 한여름밤의 무대위를 식혀 주게 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자유세, 여섯줄 댄트리 등 지역밴드와 전통무용, 민요 등 공연과 함께 즉석 장기자랑대회가 열려 한여름밤 예술의 정취와 신선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 행사일정

- 8월 3일
  - 고유제 [10:00~12:00 송포동 일대] 삼천포 12차 농악의 발생지 남양동에서 古人이 된 남양농악 1세대 명인들을 추모하고, 사천세계타악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의식행사
  - 길놀이 [16:00~18:00 사천시 관내] 시민 3,000여명이 삼천포항 중심도로를 행진하면서 악기와 두드러 소리내는 각종 도구를 이용, 대규모 퍼포먼스를 펼치는 흥겨운 축제의 장
  - 전야제 [20:00~23:00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개막식과 함께 우메즈 가스토키의 재즈밴드, 세계적 B-boy 라스트포원, 라틴뮤직그룹 코바나 등 세계타악팀들이 펼치는 환상의 무대
- 8월 4일
  - 국제학술회의 [10:00~16:00 사천문화예술회관] 타악에 권위 있는 석학들이 세계타악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계타악축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학술회의(참가국: 미국, 중국, 가나, 일본, 한국)
  - 전국타악경연대회 [11:00~17: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전통타악, 창작타악, 서양타악 단체·개인 타악경연대회
  - 세계타악축제한마당 [20:00~23: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아프리카 가나, 미국, 쿠바,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등 세계최고의 타악연주자들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리듬으로 신명나게 두드리는 타악 공연 [20:00~23:00 등대 특설무대] 국내외 5개팀 공연
- 8월 5일
  - 전국타악경연대회 [11:00~17: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전통타악, 창작타악, 서양타악 단체·개인 타악경연대회
  - 세계타악축제한마당 [20:00~23: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아프리카 가나, 미국, 쿠바,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등 세계최고의 타악연주자들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리듬으로 신명나게 두드리는 타악 공연 [20:00~23:00 등대 특설무대] 국내외 5개팀 공연
- 8월 6일
  - 시민참여무대 [13:00~17: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사천지역의 전통예술단체들이 농악, 사물놀이, 가산오광대, 마도갈바, 창작타악팀 등의 공연 및 시민참여무대
  - 세계타악축제한마당 [20:00~23: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아프리카 가나, 미국, 쿠바,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등 세계최고의 타악연주자들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리듬으로 신명나게 두드리는 타악 공연 [20:00~23:00 등대 특설무대] 국내외 5개팀 공연
- 8월 3일~8월 6일
  - 세계타악기전시 및 체험학습관 [10:00~22:00 삼천포대교기념공원] 약 60여개국 1,000여점 타악기 전시·관람 및 체험을 통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기회 제공

# 사천세계 타악 축제 2006

## Sacheon International Percussion Festival

"한국의 아름다운 길" 大賞에 빛나는 삼천포대교에서 펼쳐지는 신명나는 울림의 세상 사천세계타악축제

전통예술과 해양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남해안의 중심도시 사천에서 세계타악의 다양한 체험과 국내·외 9개국 타악그룹들의 화려한 공연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일시: 2006년 8월 3일~8월 6일  
장소: 삼천포대교기념공원 및 사천시 일원  
주최: 사천시 주관: 사천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 중앙대학교 부설 세계타악연구소

8월 3일~8월 6일

Http://www.sacheonpercussion.org [문의] 경상남도 사천시 Tel.(055)830-5071~3



# 김수영 사천시장의 10대 실천약속

## ‘남해안 최고 관광도시, 항공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나선 제7대 김수영 사천시장이 사천시민에게 10대 실천을 약속했다. 김시장은 사천시의 경제를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남해안 최고의 관광도시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해 없는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연계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내실 있게 열어 갈 계획이다.

또한 50여억원을 들여 2008년 1천여평 규모의 '사천발전소과학관' 건립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며 특히, 사천시는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등 좋은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화력·풍력·조력·태양광 발전소 등 친환경적 발전소들이 속속 유치되고 있어 과학관이 건립되면 전국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점을 둘 시장방향으로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발전, 복지시정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1.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① 항공우주 기술지원센터 건립 (2005~2008년, 107억원)
  - ②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2007~2009년, 400억원)
  - ③ 항공우주 관련 업체 투자 유치 (10개 업체, 2,490억원)
2.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 (48개 업체, 4,548억원)
  - ② 동지역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100억원, 300여명 고용) 및 상호선 유치 (300억원, 2,000여명 고용, 향촌동 일대)
  - ③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2006~2012년, 축동면 일원)
  - ④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007~2009년, 1,000평, 50억원)
  - 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2008년, 20억원)
  - ⑥ 중앙상가 비가림 시설 및 상습침수지역 정비 (2006~2009년, 126억원)
  - ⑦ 대방 조류발전소 유치 (2007~2010년, 20,000KW, 500억원)
  - ⑧ 태양광 발전소 유치 (2006~2008년, 270억원)
3. 멋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①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의 육성 발전
    - 항공우주엑스포, 세계 타악축제, 아경축제, 전어축제, 야간마라톤대회 등
  - ② 사천문화재단 설립 (2007년)
  - ③ 아트센터 건립 (2007년, 200평, 6억원)
  - ④ 2009년 도민체전 유치 (2006~2009년)
  - ⑤ 메인스타디움 건설 (2007~2009년, 64,000평, 600억원)
  - ⑥ 남일대 체육공원 조성 (2005~2007년, 6,000평, 30억원)

임의면제까지는  
**사천시보**  
주소를 보내주시면 **항우**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의/☎(055)830-8212

### 주차장 마련 새롭게 단장한 삼천포중앙시장

시는 삼천포중앙상가 주차장준공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애환이 서려있는 그 옛날 정감어린 재래시장을 되살리고자 삼천포중앙시장 주차장 준공 기념행사를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삼천포중앙시장 주차장에서 가졌다.

본 주차장은 사업비 24억7200만원을 들여 대지 1,871㎡(74면)의 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기하게 되었다.

앞으로 시는 위생청결시험점포 개선사업, 2007 상습침수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사업, 비가림시설 등이 완



료되면 쾌적한 환경은 물론 전전후상설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인소득이 증대될 뿐 아니라 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셋째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시는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 자녀의 고등학생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수업료전액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기로 했다.

시의 이번 과격적인 인구증가시책에는 ▲타시군에서 사천시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전액지원과 ▲셋째자녀 고등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지원 그리고 ▲관내 대학 학생이 90% 우리시 전입시 학교에 대해 장학금 500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시의 수업료 전액 지원으로 혜택을 보게 될 학생은 관내 9개 고등학교 셋째이상의 자녀와 사천시로 전학하게 되는 학생 480여명에게 3억84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지역전략사업 추진단 전략개발팀 ☎830-4282

### 변화와 혁신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로 7월 13일 문화예술회관 제9강 최상호 국민정신연구소장의 '이래야 부자 된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새마을연수원 교수, 농협대학 교수, 말레이시아 코베나 기술원 교수, 호주 뉴잉글랜드 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하고, 30년간 국민정 연구와 국민정신개혁에 대하여 강의를 해온 최상호 국민정신연구소장의 '이래야 부자 된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정신연구소장,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부원장에 재임 중이며 저서로는 「이래야 부자 된다」, 「사회교육방법론」, 「지역사회개발론」, 「한국국민성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영 국민성의 비교 연구」의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멋있게 사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명강의가 예상되고 있다.

/문의는 총무과 ☎830-4270

####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평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 납기개시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7. 1 ~ 7.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7.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사업소세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신고기간 : 7. 1 ~ 7. 31까지

▶신고방법 : 시·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 발부받아 직접 신고납부 및 인터넷(http://sachontax.ciclife.co.kr) 신고납부

※ 사업소세 자진납부 신고서 시·읍·면 사무소 비치

▶신고세액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면적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증과(면적 × 500원)

▶신고기간 경과시 :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830-4294)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

최근 국제유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시에서도 지난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참여방법으로는 요일별 교통량 균형유지와 참여확인 식별을 위하여 요일별 차량 끝번호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
차량 끝번호	1·6	2·7	3·8	4·9	5·0	비적용

▶ 적용대상으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산하 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차(800cc미만), 장애인 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는 차량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요일제 대상차량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길 당부드립니다.

####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2005년에 이어 2006년 올해에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로 7월과 9월에 구분 과세되어 7월에는 재산세 주택(1/2, 5만원 이하의 전액부과)분과, 건축물(선박)이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소유자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택 건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및 선박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 (2005년은 50%였고, 2006년부터 매년 5%의 인상하여 2015년에 100%를 적용함)

○세율 : 사치재산건축물 → 과표의 1.000분의 40 그 외 일반건축물 → 과표의 1.000분의 2.5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과 그 부속 토지

○과세표준 : 개별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50 (2007년까지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의 인상하여 2017년에 100%를 적용함)

○세율 : 0.15, 0.3, 0.5%(3단계) 주택재산세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이하	1.5/1,000	
4천만원초과이하	6만원+4천만원초과액의 3/1,000	
1억초과	24만원+1억초과액의 5/1,000	

▶납기변경

-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의 7월에 전액 과세

-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초과하는 7월에 세액의 1/2, 9월에 1/2 과세(예시: 산출된 세액이 4만원인 경우 7월에 4만원 전액 일시과세하고 산출된 세액이 6만원인 경우 7월에 3만원 9월에 3만원 2회 분할과세)

□ 납 기 : 7. 16 ~ 7. 31

□ 납 부

- 전국 유체 및 농협, 관내 전 금융기관 방문 직접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금융이체번호(14자리)를 이용 인터넷 지로납부 (http://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폰뱅킹(☎1588-2100 농협) 납부

- 카드납부 : LG카드만 사용가능하며 시정 세무과(산천포·사천청사) 방문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830-4297)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할 수 있다

■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이 없는 질환이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파수침투를 통해 감염되는 세균성질환이므로 만성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 발생시기 : 해수온도 20℃ 이상(7~8월)의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됩니다.

■ 균의 취약점 : 비브리오패혈균은 수돗물이나 민물에 매우 약하며, 60℃ 이상에서는 사멸됩니다.

■ 안전한 섭취방법

▶어패류는 해수에서 저온으로 저장하고 가열처리하거나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합니다. 특히 바닷가(낙시터, 해수욕장 등)에서 수돗물에 씻지 않은 어패류는 날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횡집 등에서는 위생관리(도마, 칼, 행주 등 소독)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어업인과 유통관련 종사자들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합니다.

■ 예방수칙

▶가정에서는 = 깨끗한 수돗물에 30초만 씻어도 생선회는 안전합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수돗물에 매우 약하여 잘 씻기만 해도 걱정 없습니다.

▶횡집에서는 = 삼균장치가 되어있는 수족관에 보관하거나 저온냉장된 생선회는 안전합니다. 요리기구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살균 및 저온처리하면 안전합니다.

▶노약자·병약자는 = 알콜중독자, 간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끓여 드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60℃이상 가열하여 섭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 평소 건강한 장·장년은 비브리오패혈에 안전합니다. 35세 이하 젊은층의 감염자는 아직까지 한명도 없습니다.

**올 여름,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위생수칙만 준수하면 여름철 생선회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

## 8월 19일까지 44일간,

### 바다영화제, 해변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

시는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일대 해수욕장을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7월 7일 개장에 들어간다.

7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44일간 개장하는 남일대 해수욕장은 개장기간중인 27일에는 사천

시 후원으로 3일간 바다영화제가 열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30일에는 진주MBC가 주최하고 사천시가 후원하는 해변가요제를 개최하여 관광객과 피서객의 불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름피서철과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로 아름다운 남쪽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시는 남일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화장실과 음수대, 주차장, 샤워장, 전망대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해안도로와 산복도로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는 등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또한 시는 민간자본으로 유치된 남일대 유원지 개발이 빠른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 유원지 개발지역내에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 진주 MBC 해변가요제 참여 희망자께서는 ☎055-771-2112로 참여하실 수 있다.

## 복지알림방

### 제11회 여성주간 행사 펼쳐

사천시가 주최하고 사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춘자)가 주관하는 제11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로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삼천포체육관에서 300여명이 참여하여 기념식과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가 펼쳐진다.

###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은 학교 및 재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조원을 파견하여 질 높은 통합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SK에서 지원하여 저소득 실업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에는 7명의 보조원이 5개의 초등학교 특수반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에는 장애 아동들의 열린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단은 전문 강사진이 계획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



수하여 더 나은 자질과 능력으로 장애 아동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천자활후견기관, 폐지수거사업 안내

폐지 재활용을 통한 환경 살림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지 수거사업을 사천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3년 동안 빈방, 헌옷, 고철, 캔 등 생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해 오면서 8명의 지역주민(저소득층)이 참여해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목표로 공동체사업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사천시의 도움으로 사천소방서, 삼천포·축동초등학교, 삼천포도서관, 발동동 사무소에서 폐지 기부를 받고 있다. 연락단 주시면 '폐지수거함'을 설치해 드리고, 주 2-3회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의/사천자활후견기관 장인권 ☎ 852-9522

### 어촌정주어항 기본설계 용역



시는 어촌정주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어항개발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용역계약은 체결하고, 이달부터 6개월간에 걸쳐 시 관내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기본설계를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어촌정주어항 기본설계용역사업의 조사대상은

사천시 관내 어촌정주어항 40개항이며, 조사항목은 항세, 자연조건, 배후지 여건, 해저 수심 상태 등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 문화, 복지 시설과 해양에너지 및 어촌휴양을 조화시켜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촌정주어항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본 용역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속 추진

시에서는 연안 어장환경의 황폐화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 어업생산기반 악화로 인하여 침체 일로에 있는 수산업 경기를 활성화하고,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수산종로 매입방류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연안해역의 자원증강을 위하여 2005년까지 해면중인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 종로 4,284천미를 방류하였고, 올해에도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황점볼락, 감성돔, 전복, 해삼, 갯지렁이 등 1,530천미를 구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에도 3000만원의 사업비로 붕어, 메기, 참깨 등 206천미의 우량종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연안어장에 서식하면서 바지락, 피조개 등 유용수산생물을 포식함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연계, 2005년까지 4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395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1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372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육성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취지로 어업기반조성과 수산업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역점시책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2006년산 보리매입

우리의 금년산 보리매입이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함흥동(공지, 구실, 홀곡)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시 관내에서 올해 생산된 보리는 지난해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계약생산물량 2,201.6톤(길보리 4톤, 쌀보리 138.4톤, 맥주보리 2,059.2톤)이며 올해 보리 매입가격(40kg/조곡)은 2005년도 매입가격과 동일한 쌀보리 가마당 1당 3만5690원, 2등 3만

4060원, 등외품은 2만8890원이며, 길보리의 경우 1등 3만1490원, 2등 2만9780원, 등외품이 2만4660원으로 매입한다.

다만, 맥주보리 매입가격은 추후 농협중앙회와 맥주회사 간 협의하여 추후 결정된다. 2006년산 보리매입과 관련된 지역별 매입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830-4773), 읍면동 산업담당, 해당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 2006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지로 사천대교공원 공중화장실 선정

시는 2006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지로 사천대교공원 공중화장실이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06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각 시·군에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경성남도에서 파견도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실적 및 포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리시를 행정부에 추천, 중앙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용현면 주민자치센터 대교 공원내에 설치되는 사천대교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70㎡(약21평)의 규모로 1억5000만원의 예산(국비)으로 공중화장실 1식, 오수처리시설 1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남양동 광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착공

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남양동 광포지구 해안접근로 개설사업으로 광포~미룡간 총연장 634m의 연안정비 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광포~미룡간 연안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모두 20억원을 투입 연안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실시설계 용역 및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다.



설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광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안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환경 개선을 통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 함은 물론 사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관광산업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2주년 평가보고회

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의 힘으로 자치시대'를 정착 발전시키고자 오는 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생, 지역사회 봉사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2주년 평가보고회'를 개최기로 했다.

이런 보고회는 김수영 사천시장의 민선 4기 출범 후 시민의 화합된 모습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를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행사는 1부 사천시장의 인사말씀과 내빈축사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동영상 보고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



이며, 2부는 합창, 농악, 서예 공연 등 12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시연으로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여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2주년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정보교류로 주민자치 의식 함양 뿐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동아리 및 각종봉사단체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르게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초등학생 여름방학 특강반 수강생 모집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천시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반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운영기간 : 7. 31~8. 25(4주)

▶수강료 : 10,000원(재료비, 교재비 등 본인 별도부담)

▶접수처 : 종합사회복지관 (☎830-4496~8)으로 문의바랍니다.

▶접수시간 : 7. 3 ~ 7. 21(선착순)

▶모집과목 및 인원

과목명	모집인원	대상학년	교육내용	비고
제과제빵 체험교실	40	전학년	허니 마들렌, 과일 생크림 케이크 여러가지 모양 쿠키, 바나나라떼	2개반 운영 재료비:30,000원
영어교실	20	전학년	생활회화를 통한 상황극, 영어퀴즈, 이슬우화, 팝송	교재비:10,000원
독서논술교실	20	4~6학년	비판적 독서 및 창의적 논술 통합지도	
서예	20	전학년	한글서예, 현문사자서예, 생활한자	
키키기제조	50	전학년	스트레칭, 유산소운동, 요가, 에어로빅	운동복차림

▶접수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전화접수 가능)  
▶수강료 : 10,000원(재료비, 교재비 등 본인 별도부담)  
▶접수처 : 종합사회복지관 (☎830-4496~8)으로 문의바랍니다.  
▶접수시간 : 7. 3 ~ 7. 21(선착순)  
▶모집과목 및 인원

### 200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지원(상반기)

수급자 또는 위기가정 자녀의 현장교육 참여확대와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해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고, 수혜여행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 장학금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구분	총계	계				고등학생		대학생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인원	35	4	31	2	14	2	14	3
장학금	8,300	2,700	5,600	500	2,100	700	3,500	1,500

추천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전 과목 60점 이상)

○ 장학보조금

- 수혜여행비 지원금액 : 242명 33,861천원

-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구분	계획인원	지급단가				지원대상
		남	여	남	여	
합계	27,701	13,000	14,701		수급자자정의	
중학교	179	100	50	100	2006년도	
고등학교	185	100	55	110	상급학교입학예정인원	

○ 지원시기

○ 장학금 : 연 2회 분할지급 (1회 6월중, 2회 12월중)

○ 장학보조금 : 수혜여행비(학교별 수혜여행지전일)

교복구입비(동복-3월중, 하복-5월중)

기타 학습비(수시)

### 2020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06. 6. .

사 천 시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2020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7. 19(수) 14:00~17:00

나. 장소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경남 사천시 동명동 190번지 소재)

3. 도시기본계획 개요

가. 계획목적 : 사천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

나. 목표연도 : 2020년

다. 계획범위 : 405.326km<sup>2</sup> (사천시 행정구역 전역)

라. 계획인구 : 25만명

마. 계획내용 : 도시지표설정, 공간구조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계획의 실행 등

4. 기타사항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분은 공청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사천시(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회람자가 많은 경우 등에는 발표자 수를 제한 할 수 있음),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반영할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일 이후 14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도시건축과)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건축과(☎830-8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자산업법 관련 법규 안내(중자판매업체용)

중자판매업체용

### 6월 의원간담회

사천시 의회(의장 정복영)는 지난달 7일 오전 11시 산업건설 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천시의회 제4대 의원의 마지막 간담회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재임기간 동안 정들었던 뜨거운 동료애와 함께하였던 추억을 되새기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동료의원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재당선된 의원들께는 축하의 자리를, 아쉽게 고배를 마신 의원들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 제4대 사천시의회 폐회식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산업건설 위원회실에서 제4대 사천시의회 폐회식을 가졌다.

이날 폐회식은 제4대의원,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4년의 재임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하고 지역발전의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재임기념패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제4대의원들의 의정활동담은의 정열법을 제작하여 전달하였으며,

정복영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수영 사천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복영 의장을 비롯한 제4대의원들은 2002년 7월 10일 제4회 의회가 개원한 후 4년의 임기동안 15건의 예산·결산안과 131건의 시정질문과 224건의 서면질문, 17회에 걸친 52개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집행부시정정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따른 국회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어려운 우리농민들과 뜻을 같이 했으며, 기초의원들 중앙정치에의 하수인으로 전락 시키고자 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반대'를 위하여 혈서투쟁하기도 하였다.

### 제5대 사천시의회 개원

#### 지난달 26일 의원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사천시의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사천시의회 의원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2명의 제5대 의원 당선자, 가족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배치 및 의원신분증을 전달하고 의원 당선자 가족간 상견례와 권할호 사무국장장을 비롯한 의회직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의회 기본현황과 제5대 사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장단선거,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직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의석배정, 2006년도 의사 일정안, 개원식 안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제5대 사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2명의 제5대 의원 당선자, 가족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배치 및 의원신분증을 전달하고 의원 당선자 가족간 상견례와 권할호 사무국장장을 비롯한 의회직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의회 기본현황과 제5대 사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장단선거,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직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의석배정, 2006년도 의사 일정안, 개원식 안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104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5개 안건이 모두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수동정

## 5·31 전국 지방선거에서 성공한 우리지역 출향인들 그들이 고향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씀

지난 5·31 지방자치선거 때 전국 각지에서 우리 사천시 출신 향우 동문들이 상당수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나이 젊었을 때 우리 고향지역을 출타하였으나, 이곳에서 태어나 우리 지역의 바다와 들에서 나는 산물을 먹고 뼈와 살이 형성되었고 이미 그들의 정신과 가슴 속에는 이 고향의 산하(山河)가 녹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우리지역출신 당선자들은 다른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많은 우리 향우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금이 있기까지 무던히도 많은 애를 써 왔기에 우리 사천시민과 출향인들에게 큰 자랑이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고향의 후배들에게는 또 하나의 귀감으로 앞으로 하게 될 '큰 세상' '큰 사회' 진출에 대한 고무적인 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그들의 일면을 간단히 소개코자 한다.

**△최영남-부산시의회 시의원 - 초선,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1957년생)에서 출생하여 삼천포고등학교 졸업(22회), 부산경상대학 행정학과 졸업, 밀양대학교 행정학부 산업경제학과 4년 재학 중, 사단법인 부산시 금정구 청년연합회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 금정구지부 부지부장(현), 금정구 장애인협회 운영위원장(현), 한나라당 금정구지구당 부위원장(현), 부산시)한국 한미응급봉사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현), 부산

장전3동 새마을금고 11대, 2대, 13대 이사장(현)이다. **고향 분들에게 인사말씀**  
고향시민 그리고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선거활동 중 저에게 말씀해 주신 조언들을 가슴 속 깊이 새겨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더 발전하는 사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대희-서울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 5선, 한나라당**  
사천시 서포면(1947년생)에서 출생하여 동아노블공립(주) 부사장, 태형자동차 대표(1973-1994년), 신한국당, 한나라당 동대문구 갑지구당 사무국장(1995-2002년), 동대문구 의회 내부위원장(2002-2004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재), 동대문구 이문3동 새마을협의회 고문(현), 청소년선도위원회 고문(현), 재경 서포향우회 수석부회장(현), 동대문구의회 5선 의원(1991-현재)이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님들께 인사말씀**  
고향을 떠난 지가 37년이 지난 오늘날 출향인으로서 지면으로 인사 올려 드린다는 것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중략)- 근면성과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평생'까지 이어지는 자세'라고 가슴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연이 숨쉬고 있는 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님들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용석-서울 도봉구의회 - 구의원 당선자 - 3선, 열린우리당.**



사천시 곤양면(1970년 생)에서 출생하여 동명초등, 축동중학교 졸업, 진주 동명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제3대 도봉구의회 의원(만27세), 한진 서울북부지점 객차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강남북구청발전 도봉포럼 이사(현), 제4대 도봉구의회 정반기 의장(만31세, 전국 최연소), 열린우리당 도봉구당원협의회 창4동 운영위원(현), 서울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현)이다.

**고향분들에게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9년 서울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현 열린우리당 의장인 김근태 국회의원의 지위사실에서 사무를 봐 왔었고, 98년 6월 당시 만 27세로 서울 도봉구의회 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2002년 6월 재선되어 제4대 도봉구의회 의장(만31세, 전국 최연소)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5월 31일선거에 다시 당선(3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에 주신 사천삼천포 향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박학현-울산시 동구의회 구의원 - 초선, 한나라당**  
사천시 (구) 신백동 신촌(1961년생)에서 출생하여 남양초등학교 42회, 포항1대학, 방어진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일산새마을금고 부이사장(현), 울산광역시아동협의회 부회장(현), 월봉주방 대표(자영업, 현)이다. **고향분들에게 인사말씀**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존경하신 사천삼천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을 떠나 온지 어언 30여년 세월동안 아름다운 산세의 와룡산과 아늑한 어머니 품안 같은 사천만은 나의 용기요 희망이었으며 세월의 벗이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재출신 현대중공업 삼천포 향우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기초의원에게 당선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듯이 타지에 있으니 고향이 그리워지고 애환심이 더욱 강해집니다. 고향의 와룡산에 울을 날을 기다리며... 시민 여러분, 언제나 내 고향 삼천포를 사랑합니다.

**△박성복-부산 북구의회 구의원 - 재선,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1961년생)에서 출생하여 동의공업전문대학 졸업, 태화환경공사 대표,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철규-경남 진주시의회 시의원 - 초선,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구) 신백동(1961년생)에서 출생하여 독립 남해전문대학 졸업, 명대중환간실(주) 대표, 진주 상평동 문화체육회장, 진주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지현-서울 시의원, 서초구 제2선거구-초선,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1976년생) 선구동에서 출생하여 미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학 졸업, 동대학 동아시아학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한나라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원, 미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앤드류스 국회의원, 미 국제 전략문제연구원(CSIS) 연구인턴, 미 교포방송국 ABC 뉴스 번역, 조지워싱턴대학교 콘스탄틴 멩게스 교수 조교를 역임하였다.

### 여름철 낙뢰주의 홍보

- 낙뢰에 대비합니다**
- ▶ **낙뢰가 예상되나?**
    - 건물 안, 자동차 안, 옥시 울퉁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낚시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알아 둡시다.
  - ▶ **낙뢰가 칠 때**
    - 평지나 산 위에서 낙뢰가 치고 있을 때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우묵한 곳이나 동굴 속으로 피합니다.
    - 발판에 있는 나무나 키가 큰 나무에는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 낚시대나 골프채 같은 키가 큰 물건은 땅에 내려놓고 자세를 낮춥니다.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에 낙뢰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됩니다.
    - 집에 낙뢰가 치면 TV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응급처치법**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유무를 살핍니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맞지 않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맞지 않으면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의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떨고 있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
  - 사고가 등산 중이거나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결코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 또 설사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인축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여름철 안전관리 이렇게 합니다

-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물놀이하기
  -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수도 있으므로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하기
  - 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 익사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로 신속히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19, 핸드폰은 지역번호+119)
  -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 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사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제1회 자연재난 사진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소방방재청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 유도 및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다양한 사진을 축적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제1회 자연재난 사진 및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공모 바랍니다

공모부문은 2개 부문으로 사진부, 영상부이며 작품소재는 자연재난 관련 모든 사진 및 영상물 중 국내·외 미발표작,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가뭄, 황사 등의 피해·대응·복구 등이다.

공모대상은 전 국민이며 공모기간은 2007. 2. 26 ~ 3. 17.(3주간)이며 접수는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단이다.

문의/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재난안전관리과 (☎ 830-4681)

### 군 의문사유가족들의 진정 및 목격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관련자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진정·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군 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하신 분, 또는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분들의 적극적인 진정 및 제보를 기다립니다.

▶ **진정기간** : 12월 31일까지(공휴일 제외)

▶ **진상규명의 범위**

- 군인 또는 전향복무자(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향복무자로서 경비교도대원, 전·의경, 의무소방대원등을 의미함.)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 ① 1993.2.25일부터 2005.12.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
- ② 1993.2.25일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
- ※ 다만, '진실' 회복을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회복을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은 제외

▶ **진정자격**

- ①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배우자)
- ②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
- ③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목격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여야 함.)

▶ **진정서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빌딩 10층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획과 민원팀 우편번호 100-778/☎(02)2021-8181 ~ 8182(FAX 8183)

▶ **진정방법**

- 소정의 진상규명진정서를 작성해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접수
- ※ 진상규명진정서는 접수처에 오시면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자료제공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보협력실 (☎02-2021-8124)>>

### 수돗물 공급 서비스 표준 안내

-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원. 정수 항목별로 엄격한 수질검사 실시
    - 누수복구로 수돗물 사용 불편 최소화
    - 급수구역 불투화 및 2011년까지 노후관 교체 유수율 80%이상 향상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대학교수, 시민대표 등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수질관리의 투명성 확보
    - 수질검사 결과 매일 공개
    - 공사로 인한 계획단수 시 7일 전 단수내용 홍보
  - **고객편의의 요금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검침일 준수 및 고지서 납기 7일전까지 전달, 재교부 요청 시 3일 이내 도달 처리
    - 요금 부과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시 늦어도 50일내 결과 통보
    - 육내지하누수량 감면신청서 교부·접수대행
    -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 시 예고장 3일전 발부, 해제 신청 시 2일 이내 처리
  -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육내지하누수 점검요청 시 늦어도 2일 이내 누수점검 서비스 제공
    - 수돗물 수질 이상 신고 즉시 현장 방문 수질검사 실시
    - 민원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및 만족도 매일 조사 후 불만·잘못된 부분 개선
    - 각종 수도 관련 민원사항 당일 처리 하되 부득이할 경우 익일 처리
  - **시민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육내누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바라며, 점검요령은 수도꼭지를 모두 잠금 상태에서 계량기판에 빨간색 별(★)이 돌아가면 집안 어딘가에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 노면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면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고객께는 신고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요금 1개월분을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이사 또는 가옥매매 시 체납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사 천 시  
수돗물서비스센터

### 사천읍 승격 50주년 기념 ‘읍민 건강걷기대회’

사천읍사무소는 사천읍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전 읍민의 축제 분위기 고조와 전 읍민 참여로 더불어 행복한 읍 발전을 위하여 ‘읍민 건강걷기대회’를 오는 8월 오전 6시 사천공설운동장(사천읍 수석리 소재)에서 개최한다.

사천읍사무소가 주최하고 사천읍 체육회가 주관, 관내 자생 및 봉사단체가 후원하는 건강걷기대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설운동장을 시작으로 구암도로, 구암포지, 구암농로,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경남공립정신병원, 합심원, 한마음병원에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해 사전에 화재발생 요인을 철저히 점검·제거하고 관계자들에게 자율방화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대형화재를 방지하고자 실시하였다.

공설운동장까지 왕복 5km코스이다.

또한 이날 건강걷기 대회에는 사천읍 주민자치센터의 사물놀이와 에어로빅, 꼭지점댄스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아울러 참여하시는 시민에게 400여종의 푸짐한 경품과 기념메달이 준비되어 있다.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천시 생활정보넷에서 부동산 매물 공짜로 등록하세요



#### ▶ 접속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 접속하여 사천시 생활정보 NET 배너클릭
- 주소창에 <http://lifegis.sacheon.go.kr> 또는 <http://210.104.247.136> 직접 주소 입력
- 사천시 생활지리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목록중 시민·전상가업주와 관련 있는 부동산 매물(전세, 월세, 매매 등) 등록/수정하는 방법을 홍보하니 사천시 생활정보넷을 활용하여 부동산 매물을 등록바랍니다.

#### ▶ 등록방법

- 개인회원

- ① 대상 : 사천시 웹메일(e4000.net) 가입자
  - ② 웹메일에 가입된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미가입자는 개인회원 가입후 로그인)
  - ③ 주요 메뉴중 부동산-부동산 매물등록을 선택하여 매물종류,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매물기간, 휴대폰, 관련 사진입력
  - ④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매물의 위치와 함께 생활지리 홈페이지의 매물로 등록되어 홍보됨
- 기업회원
- ① 대상 : 사천시 전 상가업주
  - ② 먼저 상가업주께서는 기업회원 클릭후-회원가입하기를 선택하여 해당 상가를 찾아 가입신청
  - ③ 기업회원에 가입된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④ 주요 메뉴중 부동산-부동산 매물등록을 선택하여 매물종류,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매물기간, 휴대폰, 관련 사진입력
  - 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매물의 위치와 함께 생활지리 홈페이지의 매물로 등록되어 홍보됨

### 소 브루셀라병 예방·근절 위한 방역 보완대책 7월 15일부터 시행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 보강과 농가 책임의식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유도하여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검사 대상 및 살 처분 보상금이 변경된다.

시세의 80%, 2007년 4월 1일부터 시세의 60% 지급된다.

검사대상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우우 암소(도축용 포함)와 농가 문전거래 및 도축용 한우우 암소와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한우우)를 가축시장 또는 문전거래시 어미소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되며 살 처분 보상금이 현행 시세의 100%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10두 이상 한우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연 2회(매년 7~8월, 11~12월) 농장별로 6개월 간격으로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문의/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830-4797, 1588-4060

###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재산의 피해 발생시 10일내에 이·통장집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 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

장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시·군·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도 공예품대전에서 사천시 출품작 수상

전통공예 기능을 계승 발전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제36회 경남도 공예품 대전에서 사천시 출품작이 수상을 차지하였다.

수상작은 김명운씨의 '자연에서 하늘까지'가 장려를, 김영태씨의 '차갈기'가 특선을, 장혜경씨의 '십이지신상'이 입선 수상하였다.



◀장려-김명운씨의 '자연에서 하늘까지'



◀특선-김영태씨의 '차갈기'



◀입선-장혜경씨의 '십이지신상'

### 노도노식

### 공무원 연금 VS 국민연금

1.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자	VS	민간노동자
2004년 퇴직한 공무원 27,000명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8천4백40억(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2조2천4백억(원)

2. 공무원연금기 국민연금보다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노동자 공무원연금	VS	민간노동자 국민연금+사회보험+퇴직금
보수월액의 8.5%	연금 보험료 납부액	소득월액의 4.5%
보수예산의 12% (보수총액의 8.4%) 연금부담금 8.5% + 퇴직수당부담금 3.5%	노동자를 위한 사용자 부담비용	보수총액의 14% 연금부담금 4.5% + 퇴직금총담금 8.3% + 고용 보험료 1.1%
재직기간 20년 이상 징계 파면시 1/2 지급제한 등	연금수급 요건	보험료납부 10년 이상

3. 공무원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구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대만	한국
공무원 부담율	9.19	7.0	7.85	0	8.5
정부 부담율	25.6	34.2	28.5	전액	8.5

### 사천시정뉴스 채널 6번에서 방영됩니다

사천시정의 생생한 뉴스를 (주)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일, 수, 금요일(오전 10시20분, 오후 4시20분, 밤 11시20분)에 주 3회, 1일 3회 방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아름다운 효행 실천한 원주성군

오랜 세월 간경병으로 고생해 온 어머니를 위해 지난달 2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신의 간을 이식한 효행 학생 원주성군(삼천포 중앙고등학교 재학)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

선원일을 하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간경병으로 입원하자 일을 중단하고 아내를 간병하고 있으며 큰딸과 둘째딸은 부산에 있는 외삼촌택에서 아르바이트를, 셋째와 막내딸은 여수와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돕고 있으나 병원에서 4700만원의 지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복지지원 차원에서 긴급구호와 라면,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 고령진 교육감과 사천교육청에서 각각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삼천포로타리클럽 양재 문화장이 성금을 모아 지난달 23일 2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중앙고등학교 자체에서도 성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원주성군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초·중·고 학교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원주성군 돕기에 나서고 있으며 아름다운 효행을 실천한 주성군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다.

### 시정 밖 소식

#### ■ 사천소방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사천소방서는 화재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각종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화재시 어린이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들을 소방서로 초청하여 화재시 신속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방법, 119 신고요령, 기본 응급처치술,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였다.

문의/☎ 830-9243

#### ■ 사천소방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민관합

#### 동 소방훈련

사천소방서는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경남공립정신병원, 합심원, 한마음병원에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해 사전에 화재발생 요인을 철저히 점검·제거하고 관계자들에게 자율방화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대형화재를 방지하고자 실시하였다.

#### ■ 사천읍 의용소방대 119 사랑소화기 보급



사천읍 의용소방대(대장 신정식, 정영숙) 전 대원은 고령층 다수 출입장인 마을회관 31개소 및 장애인가구 35가구에 대하여 각종재

난으로부터 안전지킴이 역할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119사랑소화기 보급 운동을 지난 달 23일 사천읍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전개하였다.

본 소화기는 의용소방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소화기 사용방법과 관리요령 및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함으로써 물론 장애인 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 무료점검 서비스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연합회는 화재진압 홍보 캠페인 및 화재피해복구 지원을 61회 2500여명에게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소화기 보급 실적도 172대에 이르고 있다.

#### ■ 사천교육청, 2007학년도 개교 예정학교 교명 공모

사천교육청은 2007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학교(사천읍 평화리 184-2번지, 가칭 고읍초등학교)의 교명 선정에 있어 사천시민의 많은 참여와 지역정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7월 21일까지 2007학년도 개교 예정학교 교명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방법은 교명에 대하여 응모하실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불임 교명추천서를 사천교육청 관리과(☎ 830-1572)로 제출하거나 사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edusc.or.kr>) 열린마당/자

유계시간)에 추천자인적사항, 추천학교명(한자병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폴리텍 항공대, 2007학년도 신입생 수시 1학기 모집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은 2007학년도 신입생 수시 1학기 모집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다.

금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는 6개 학과 모두가 항공특성화로 개편되어 국내 유일의 항공분야 2년제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 대학평가 결과 23개 전국 한국폴리텍 대학중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완벽한 교육여건과 시설을 구축하였다.

합격자 발표는 8월 1일이며 합격자 등록은 8월 4일부터 8일까지이며 입학 문의는 ☎ 830-3411~3 또는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www.kapc.ac.kr](http://www.kapc.ac.kr))이다.

#### ■ 범도민 화합과 독서생활화 위한 '제2회 경남 독서한마당'

창원도서관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경남지역협의회,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외 19개 지역교육청이 후원하는 범도민 화합과 독서생활화를 위한 제2회 경남 독서한마당 행사를 8월 31일까지 응모한다.

### ♣ 보건 알리미방

#### 어르신 무료 인공관절 수술 안내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어르신들의 대표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해드리고 있다.

오는 8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며 의료비중 본인부담금(노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만 60세이상 시민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 사실 생계곤란자,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 가구로 고관절 및 무릎관절을 검진한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의료보험과 보호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평소 퇴행성 관절염(무릎, 고관절) 및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검진을 신청하셔서 의료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문의/건강증진담당 ☎830-4758,4756

####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도우미 파견 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출산가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산급여로 대체)된다.

지원내용은 산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기간은 2주(10일), 월~금(09:00~18:00)이다.

문의/☎ 830-8769

#### 깨끗한 손, 손 씻기 체험으로 전염병 예방 합시다

시민을 대상으로 9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바른 손 씻기 체험관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민원 대기실에 손 씻기 전·후 손의 위생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손 세정검시기'를 설치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 대상으로 직접 손 씻기 체험을 통해 철저한 손 씻기 보건교육을 통해 식중독 집단발생 및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대표홈페이지 <http://chc.mohw.co.kr> '손 씻기 대국민홍보 애니메이션'을 많이 이용 바랍니다.

####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요령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은 데우고 익혀서 먹습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십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가급적 생일잔치 등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삼가 합니다. 경미한 설사환자라도 즉시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음식업소에서는 =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종사하여야 합니다. 설사 증세가 있는 자는 절대 음식물 취급을 금지합니다. 손님에게는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합니다. 조리 전, 용변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상수도 및 안전이 확인된 물만을 사용합니다. 조리·주방기구는 철저히 소독합니다. 화장실 등 시설환경을 청결히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십니다. 학교주변 비위생적인 식품은 사먹지 않습니다. 가급적 생일잔치 등 집단적으로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화장실 등 생활용수도 소독된 물을 사용합니다.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설사증세가 있는 아동은 등교를 금지하고 즉시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참여대상은 경상남도 거주 초·중·고등 학생 및 일반(대학생포함), 기성 작가는 제외하며 응모부문은 독후감상문, 독후감상화, 독서포스터, 독서사진이다. 응모는 사천도서관, 삼천포도서관(응모자의 인근도서관으로 제출)에 직접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도서관 및 삼천포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국민연금 '청소년 글짓기' 현상 공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후준비의 기본인 국민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후원 아래, 초(4~6학년)·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청소년 글짓기를 현상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세 부문이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논술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인터넷([www.nps4u.or.kr](http://www.nps4u.or.kr))을 이용하여 응모하면 되고 학생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희망학교에 대한 국민연금 설명회도 실시한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02-2240-1033~4 또는 국번 없이 1355

### 동창회 소묘

전 영 순

해질녘  
 들물횃집이 층층에 앉아  
 노을에 적어 먹는 회맛은  
 그 어떤 아낙이 만든 초고추장보다 달다

전직 교수님도 교장선생님도,  
 시의원의 아버지도 아닌  
 다만  
 삼천포 초등학교 26기 동창생으로 모인자리

정년없는 시인이 된  
 내가있든들 무엇하랴  
 꽃다웠던 친구들  
 별이있던 너희들  
 예전에 그랬노라고 증명할 수 없으니

그래  
 굵던 것 다 흘려보내고  
 서운했던 일도 다 삭히고  
 하얀 물에 머리 행구니  
 우리 다시 티 없는 화선지  
 파랑, 노랑, 연분홍  
 어떤 색인들 물먹이지 못할까

고향바다 침범대던  
 우리들의 맨발엔  
 꼭 그만큼의 쪽빛도  
 차별없이 묻었겠지

멀리 있어도 떠나살아도  
 우리 동창생이야  
 영현아, 주도야, 대주야  
 그리고 아직 덜 커서 젊은 동진아

〈작가소개〉  
 ○ 삼천포 초등학교 26회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청심절욕(淸心節欲)

청심절욕이란, 맑은 마음으로 욕심을 억제함을 뜻한다. 제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을 스스로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 악한 마음은 악에 의해서 더욱 굳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은 거짓말을 못한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소제(掃除)했다고 언제까지나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떠나고 만다. 어제의 좋은 생각은 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되씹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 주고 불평을 갖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온다.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다.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적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악연의 씨앗이 된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이 선량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마음이 흥분해야 오래 산다. 행복과 불행은 모든 마음에 달려 있다. 열길 물 속은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어렵다. 친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사심(私心)을 가진 사람에게 정도(正道)란 두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사심은 반드시 밝혀진다. 인제명호제피(人在名虎在皮)라고 했다.

순한 마음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항상 청심(淸心)으로 존경을 받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이름, 덕(德)의 향기가 풍기는 이름, 존경과 흠모(欽慕)의 대상이 되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 돈을 모으되 깨끗하게 모아야 한다. 정직과 성실과 노력으로 번 돈이 깨끗한 돈이다. 부정부로 모은 돈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 부를 사랑하는 것만큼 험량(淸量)하고 또한 비천한 정신은 없다.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 그것이다. 돈은 번뇌와 비애의 근원이다. 부정부로 얻은 권력은 탁권(濁權)이라고 하며, 정당하게 얻은 권력은 청권(淸權)이라고 한다. 맑은 사회에서는 권력 위에는 정의가 있고 양심과 법이 있어야 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살아가기에 넉넉한 재산 가지고도 돈을 욕심을 내다가 죄를 내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악연의 씨앗이 된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이 선량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마음이 흥분해야 오래 산다. 행복과 불행은 모든 마음에 달려 있다. 열길 물 속은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어렵다. 친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사심(私心)을 가진 사람에게 정도(正道)란 두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사심은 반드시 밝혀진다. 인제명호제피(人在名虎在皮)라고 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다.

부모가 지어 준 이름에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이름, 침을 빨고 싶은 이름, 구토와 분노를 느끼는 이름, 추욕과 모멸(侮蔑)의 대상이 되는 이름, 철면피와 파렴치의 악치가 풍기는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는 격기비심(格基非心)해야 한다. 불

### 〈우주항공소년포록이의항공이야기3〉

###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



매년 10월, 우리 고장인 사천에서 열리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에어쇼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Black Eagl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블랙이글은 대한민국 공군의 최정예 조종사들로 구성된 팀으로, A-37 항공기를 이용해 각종 행사에서 에어쇼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은 A-37B(Dragon Fly) 6대를 갖춘 비행팀으로서 편대기동을 실시하는 4대와 솔로기동을 담당하는 2대로 나뉘어 특수비행을 선보인다. 88서울올림

픽 개막식에서 A-37 전투기로 오색 연막을 사용하여 오프마크를 공중에 시연하기도 했다. 블랙이글 소속 조종사는 비행시간 1천시간 이상의 베테랑들이며, 그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은 세계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A-37 항공기는 경비행기 제작업체로 유명한 미국 세스나(Cessna)사에서 1953년 개발한 항공기로서 중등 훈련기로 제작한 T-37의 공격형 기종이다. 원래는 훈련기로 제작되었지만 1963년 경공격기로 개량되었고, 1967년 월남전에서 활약했다. 월남전 이후에 소개되고자 한다.

블랙이글은 대한민국 공군의 최정예 조종사들로 구성된 팀으로, A-37 항공기를 이용해 각종 행사에서 에어쇼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은 A-37B(Dragon Fly) 6대를 갖춘 비행팀으로서 편대기동을 실시하는 4대와 솔로기동을 담당하는 2대로 나뉘어 특수비행을 선보인다. 88서울올림

용하고 있는 A-37은 기존의 A-37에서 7.62mm 미니건을 제거시키고 조종석의 우측에 연기 발생기(Smoke-Discharger)를 부착했다.

블랙이글이 사용하는 A-37 기종은 다른 외국 특수비행팀인 미 공군의 썬더버드(Thunder Birds)팀의 F-16, 미 해군 블루엔젤(Blue Angels)팀의 F/A-18 항공기에 비해 오래된 항공기이다. 현재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특수비행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산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블랙이글팀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항공산업과 공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기술로 개발된 국산 항공기를 사용하여 멋진 에어쇼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산항공기를 이용한 블랙이글팀의 멋진 정성을 자랑한다. 엔진 GE J85-GE-17A (2,850lb), 최대속도 약 750 km/h, 항속 거리 약 1680km 이다. 블랙이글에서 운

### 나이 포물선

변 근 철

그냥 지나친 할아버지 한 분  
 눈이 어두워  
 두고 간 길 잊으셨나 봐

단칸집에서  
 평생에 똥가를 만들어  
 쌓아 두 게 헤아릴 수 없어

어디로 가셨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수초 사이마다  
 담뱃대 문 할아버지가  
 뽀얀 지난날을 들고 계시다.

〈작가소개〉  
 ○ 용현면 선진리 거주  
 ○ 자유기고가

###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금년 들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가 지난 5월 31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 것이다.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지역의 살림을 꾸러갈 단체장들을 탄생시켜 놓았다. 그러나 그 단체장들을 탄생시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다가도 모자라 고소고발까지도 서슴지 않았으니 이밖에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몇 배 아니 몇 십 배가 더 많을 것이라는 데는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초의원까지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자기지역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간이나 이웃은 물론이며 친인척이나 문중들마저도 외면하기가 일쑤였고 그것도 모자라 서로의 지지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먹살잡이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먹다짐까지 벌이기까지 하였으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서거방법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모두 성장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수준이 도가 넘치고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는 끝났다. 그렇다면 승자도 패자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이요. 이웃사촌이며 형과 아우다. 승자는 승자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패자의 아픔을 생각해주고 또한 패자도 좌절감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승자의 손을 잡고 축하의 마음을 전해 주면서 선거전의 이웃사

촌과 형, 아우의 모습으로 돌아 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서로가 지역민들에게 선거 중에 내 건 공약 중 좋은 것은 내 것 내 것 없이 모두 찾아내어 우리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지난 선거기간 중에 폐였던 모든 감정의 골을 되메우는데 서로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옛 서산대사 선시중에 “躡雪野中去不順胡亂行 今日 我行跡遂作後人程(적설야중거 불순호란행 금일 아행적수 작후인정)” -눈 덮인 광야를 지날때에는 모름지기 발자국을 조심하라,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뜻이 오늘 내가 한일들은 후일 사람들에게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산대사의 시를 인용해 보았다.

끝으로, 이번 당선자 모두는 옛 고사 성어중에 俯仰無愧(부양무괴)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나 땅을 굽어보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지켜 나가는 길만이 또다시 4년 후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가슴깊이 명심 또는 명심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조복래 · 곤양면

### 녹차 한 잔 하실래요

공부가 지나고 나서부터 차발 관계가 있으며 데아닌은 단맛과 상쾌한 맛의 근원이다. 가톨릭의대 김경수 박사팀은 녹차의 함유물 가운데 'L-데아닌'이라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한국영양학회지 논문을 통하여 'L-데아닌'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알파파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암기력 향상, 신체적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촉진 등이 알파파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표했다. 김경수 박사팀은 "L-데아닌"을 머리를 맑게 해주는 물질로 주목했다. L-데아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1949년에 화학적 구조가 밝혀졌고 발효공학에 의한 대량생산 기술도 특허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에 쫓겨 우리 아이들에게 자상스런 어머니의 손으로 녹차 한 잔을 우려주면서 하루 동안의 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와 아이들의 머리를 맑게 하여 좁은 물론이요, 뜨거운 물을 식혀 차를 우려내는 일련의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기다리고 인내하며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예절과 심성교육을 결실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옛날 진주 대아중·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아인 박종환 선생님은 교장실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차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교과과정 중 일정시간을 학생들이 차를 마시고 차에 대하여 공부하는 수업으로 하게 하였던 사실이 문득 선견지명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곧명면 용산리에 있는 다슬사를 중심으로 병행산 일대

에는 영봉대원 등 많은 차밭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금성리에는 14만3100평의 대규모 차나무 재배지가 조성되어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171만8000여 주(평당 12정정도)의 모종을 식재하여 평지 차밭으로는 전국 제일 큰 규모로 조성하였다. 2~3년 뒤에는 차를 생산할 것으로 보는데 차나무 재배에서 차제품생산까지 전 과정을 완전기계화를 꾀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고 무농약 유기농재배로 품질을 고급 다양화 함으로 가격,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하여 사천녹차원영농조합법인의 이창호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34농가에서는 우리나라 차 산업의 새로운 경영모형을 제시해주는 녹차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부분 꿈에 젖어 있다.

금성리의 차밭은 진양호 주위의 빼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한 자연경관과 차밭을 함께 관광할 수 있으며, 앞으로 차밭 내에 연꽃호수를 조성하고 차밭과 연꽃호수를 조경하고 차밭과 연꽃호수를 한눈에 관광할 수 있는 전망대와 차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눈으로 즐기는 관광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을 결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데, 마무리만 잘 한다면 전남의 성과를 식혀 차를 우려내는 일련의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기다리고 인내하며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예절과 심성교육을 결실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옛날 진주 대아중·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아인 박종환 선생님은 교장실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차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교과과정 중 일정시간을 학생들이 차를 마시고 차에 대하여 공부하는 수업으로 하게 하였던 사실이 문득 선견지명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곧명면 용산리에 있는 다슬사를 중심으로 병행산 일대

###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

### 사천시 경계종주(境界縱走)(4)



낙남정간의 맥을 끊고 역류되어 흐르는 한강은 가화강

이제는 사천읍을 지나 축동면이다. 사천공항과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하고 3번 국도가 지나는 곳으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와 경계한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화체단지가 들어섰다. 남해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밀고개로 올라선다. 오른쪽 앞대는 예전에 버섯농장이 창원농산이 있었던 곳이나 조정수농장과 묶은 농경지로 변했다. 한때 경남낙합이 소유했으나 지금은 진주 사람들의 공동소유이고 일부는 개인소유로 개사육장과 양봉을 치고 있다. 농장길을 따라 산등성으로 올라서면 밀고개(70.5m)이다. 한창동안 잡목과 가시덤불을 뚫진 끝에 수풀속에 묻힌 삼각점을 확인한 뒤 산자락을 내려서면 임도를 만난다. 잠시 후 임도는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시경계는 단감을 비롯 한 배, 밤, 매실농장으로 계속 이어진다. 한 농장인데도 능선을 경계로 오른쪽은 진주 땅인 경우도 있다. 농장을 지나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서면 고갯길을 만난다. 왼쪽은 사다골이고 오른쪽은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삼대(心大)마을이다. 한골이라 부르면서 설복(舌福)을 누릴 수 있도록 녹차 한 잔 안 하실래요. /조영규 · 세무과

탑마를 뒀산인 오동산(烏龜山)을 지나면 무선산에서 헤어진 낙남정간을 다시 만난다. 건너편에 실봉산(185m)이 보인다. 실봉산은 낮지만 낙남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산이다. 마루금을 따르던 소나무재선충작업무덤이 줄을 잇는다. 어디로 가나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큰일이다. 오른쪽으로는 임도가 따라오

고 밭아래로는 경전선 유수터널 지나다. 또 얼마 전에는 유동에서 진주로 넘어가는 포장도로가 뚫렸다.

목벤산 직전에서 낙남과 시경계는 포장도로를 따라 내려선다. 목벤산은 일제가 기 땅에 큰 인물이 나지 않게 하려고 정상부위에 십(+)자로 목을 베었다하여 목벤산이라 하는데 지금도 그 흔적은 뚜렷하다. 단감나무 과수원 길을 따라 삼밭과 유동마을을 있는 유동고개를 지나 신촌 밭산을 올랐다가 내려서면 비리재(신촌고개)이다. 1049년 도로를 건너 산자락을 오르면 밤나무밭으로 산자락과 칠면조가 객객거리며 과수원을 지키고 있다. 전골에서 유동마을로 넘어가는 옛 고갯길을 지나 산줄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선다. 이 주변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비약산이라 부른다. 여기서 낙남을 버리고 사천시는 왼쪽으로 급격히 솟아지는 산등성으로 내려선다. 땀땀이 다신 흔적만이 있을 뿐 사람의 족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산 아래는 갯골(관동窟洞)마을이다. 갯의 형국이라 하여 갯골이라 하나 사천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다음호에 계속〉  
 /조만중 · 사천농협

사천읍

주민자치센터, 삼소원 방문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재근)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외부로

문 노인들을 위문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삼소원(남양동 소재)의 어르신 생신잔치 행사에 주민자치위원과 댄스포츠(중급반), 풍물반, 노래교실반 등 동아리별로 약 1시간가량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어르신들과 한바탕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마을지도자, 꽃동산 조성

사천읍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는 지난 4월부터 사천읍 용당리 한국항공 입구 유휴지 약 700여평의 부지에 꽃동산을 조성하였다.

이 곳은 사천강의 종점이자 해안도로 입구로써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고 또한 공단지역 직원 및 외래객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기존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던 곳을 사천읍 새마을회원 30여명이 개간하여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씨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꽃모종을 식재하여 깨끗한 내과장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새마을회는 다른 곳에도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꽃밭 조성 및 살기 좋은 사천, 아름다운 사천을 만들기 위한 지역정화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동면

대한노인회 23회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정동면 분회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1시 정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경로회별 회장·총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회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공경을 실천해 온 정동초등학교 김영희 교사와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정삼동 분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이 먼저 젊은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고령관념에서 벗어나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노인이 되자"고 역설하였다.

한편 이날 정동초등학교 합창부 30여명이 축하를 불러 주는 등 지역사회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기도 하였다.

사남면

새마을 지도자 사랑의 집 고쳐



사남면 새마을지도자 남·여 협의회원(곽석도·이도남) 49명은 우수기대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은 관내 생활이 어려워 주거수선이 어려운 가정 및 거동불편 가정, 혼자 사는 노령가정 등 마을별로 선정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시정구현을 꾀소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김현이씨(여, 71세)의 집에 지붕 슬레이트(15장)와 담장(10m) 등을 수리했다.

앞으로 새마을협의회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 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현면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실시



용현면에서는 6월중 지진해일 대비 민방위 방재훈련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사천대교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지난 2004년 12월 남아시아 지진해일과 20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 발생 등 지진에 대한 경시 대응태세 확립과 능력배양을 위해 353차(6월) 민방위 날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해일) 대비 방재훈련'을 중점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주민마을 민방위대원들과 주민 등 12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발생 상황전파 및 재난경보 발령에 의한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대국민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상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피요령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진재난 피해상황을 가상한 상황대처 및 수습 등을 점검해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했다.

113세 도내 최고령자의 소중한 한표

도내 최고령 유권자인 박일례 할머니(113세, 주문리 거주)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경 용현면장과 사천소방서의 도움으로 용현 금문마을회관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투표용지를 받아 신중하게 기표를 한 뒤 손자의 도움으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야말로 귀중한 한 표로서 지리매김하였다.

축동면

예동정 현판식 가져



예동마을은 지난달 15일 마을이장과 외부인사 등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예동정 현판식을 가졌다.

예동정은 전 주민의 설렘과 기대 속에 지난 3월 중순 착공하여 약 2개월에 걸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된 5평 규모의 팔각정으로 주민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 마을 전체를 더욱 운치 있는 마을로 바꿔 주었음 뿐 아니라 향후 지역민들의 시원하고 안락한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격려금 전달

축동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관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 분기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첫 번째로 지난달 7일 용수마을 노백아씨 가정을 방문, 격려금(25만원)을 전달하고 위로·격려 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양 단체는 지역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곤양면

면사무소 농촌일손돕기 실시



곤양면사무소는 지난달 7일 영농기를 맞아 농업인의 고령화 등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면사무소 직원 15명이 참여해 우티마을 조필순씨 과수원 2000평에서 포도나무 수척기 작업을 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지만 업무형편상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을 다짐했다.

박태정 곤양면장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일손돕기 접수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동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실시

새마을지도자 동서동 협의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생활환경이 어려워 주거시설을 보수하지 못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4가구를 선정하여 창틀과 대문 시공, 도배, 부엌수리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집을 단장하게 된 주민은 자신의 집을 둘러본 후 어린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흐뭇해하였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려운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민에게 높은 효응을 받고 있다.

통·반장 및 조직단체 단합행사

동서동 통·반장 및 조직단체 단합행사가 6월 16일 실안 해성농원에서 열렸다. 동서동 통·반장을 비롯한 조직단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풍선 터뜨리기,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피구, 2인 3각 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단합행사는 살기 좋은 동서동으로의 도약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통·반장 및 조직단체 회원들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행사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보물찾기와 경품추첨 그리고 기념선물을 통해 풍성한 선물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장정갑 동서동장 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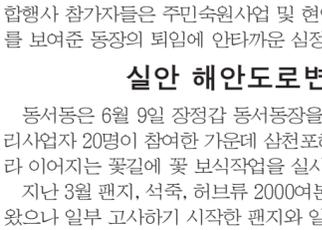


지난 1976년 3월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후 30년 4개월 동안 청렴한 공무원의 표상으로 공무원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 온 장정갑 동서동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퇴임을 맞이했다.

퇴임식 거행에 따른 동서동 조직단체와 지인,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담과 수고를 일체 가지지 않겠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실안해성농원에서 있었던 동서동 통장협의회가 주관한 통·반장 및 조직단체 단합행사에서 간단한 깜짝 송별인사를 하는 것으로서 조촐하게 퇴임인사를 대신하였다.

동서동 이삼수 시의원은 송사를 통해 냉철한 행정관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동정을 이끌어온 장정갑 동서동장의 공로에 감사와 서운한 마음을 전하였고, 단합행사 참가자들은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동장의 퇴임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실안 해안도로변 꽃길 보식작업



동서동은 6월 9일 장정갑 동서동장을 비롯한 직원 14명과 통장 및 노인일자리사업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실안해안도로변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에 꽃 보식작업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팬지, 석죽, 허브류 200여본을 식재한 후 수시로 보식과 관리를 해왔으나 일부 고사하기 시작한 팬지와 일장하지 않은 식재밀도로 도시미관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투비와 메리골드 등 1200여본을 보식하였다. 새로이 단장한 실안해안도로변 꽃길에 올해 5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 수상한 창선·삼천포대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구동

'선구동 등산학교' 창립 총회



선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여 자치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 프로그램 운영상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 제고와 남성참여 확대를 위해 '선구동 등산학교'를 신설하여 지난달 23일 총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 선결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정기적인 산행(월 1회 실시)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직단체 자율정비로 활력 넘쳐

선구동 자생조직단체는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선구동을 만들기 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선구동은 오래전부터 여론의 중심지로 시장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들어 상권전 등 생활의 활력이 다소 떨어지는 등 옛 명성을 되찾자는 시민공감대 형성에 따라, 선구동 조직단체부터 변화에 앞장서기로 하고, 회원정비와 조직 통·폐합 등을 각 조직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년회는 행정동 통합이후 자연마을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회를 선구동 청년회로 통합하기 위한 친선체육대회를 지난달 17일 대성초등학교 운동장

에서 갖고 결의를 다졌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임원진 임기도래에 맞춰 위원 재편을 위한 '자체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영입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은 통장협의회(회장, 이철봉) 주관으로 통장 23명과 선구동 직원들이 하루일정으로 산행을 하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다.

동서금동

통창이주단지 꽃밭 조성



동서금동 전 조직단체원 및 공무원 60여명은 지난달 12일 통창이주단지(약 800평)에 봄을 만끽했던 유채꽃을 모두 뽑고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와 메밀 씨앗을 뿌렸다.

통창이주단지 꽃밭은 클린 동서금동 만들기와 연계하여 조성되었으며 버려진 공한지를 꽃밭으로 바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함께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동서금동 조성에 힘을 모았다.

아름다운 사랑 실천

동서금동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6일 회원 15명 전원이 합심하여 소년·소년가장 및 독거노인 11가구에 각종 밀반찬을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건강 체조교실 수강생 50명은 관내 자매결연가구인 김지현씨에게 성금 5만원을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하였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동서금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는 지난달 17일 하회마을(경북 안동 소재)을 견학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로 격려와 위로하면서 새마을정신의 바른 실천과 협의회와 화합과 발전 의지를 다졌다.

별양동

동사무소 주차장이 확 바꿨습니다



별양동에서는 지난 6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의 제공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사무소 뒤편에 100여평의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조성된 주차장에는 직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인근 지역주민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사무소 앞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량이 뒤쪽 주차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앞에는 넓은 민원 전용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들은 "동사무소에 왜 이렇게 차가 없느냐"고 질문할 정도이며, 별양동에서는 이로 인해 바쁜 현대에 시간을 내어 동을 방문하는 민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위, 봉사활동 전개

별양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종진)는 노인부부 가구로서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매월 현금, 밀반찬 제공, 말벗되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1가구에 대해 매월 집중 지원하고 있어 봉사가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세 가지 주제('바른 생각-바른 행동',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하세요.')의 변화와 혁신 문구의 플래카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향촌동

연합청년회, 화장실 설치 봉사활동

향촌동연합청년회(회장 정봉열)는 한국정화건설(대표 정영춘)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9일 2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고개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일자

가구에 수세식화장실 설치 봉사 활동을 전개 하였다. 아들이 사업실패로 집을 나간후 두 손자의 양육을 맡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박교순(85세)씨가 기존 재래식 화장실 사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회원들이 합심해 화장실을 설치해 준데 대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청년회에서는 5년전부터 역점사업으로 생계곤란자들에게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를 늘려 계속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여름철 국토대청결 운동 펼쳐

향촌동(동장 강호천)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피서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사천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향촌동 자연보호협의회 5개 조직단체원과, 마을주민, 군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변 생활취약지역 및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자치 밤새나고 불결해 자기 쉬운 주택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주민들이 자제적으로 환경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동

주민자치위, 전통 짚공예교실 운영

남양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희)는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농한기중 실내 숲에서 전통 짚공예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 생활용품 대부분이 플라스틱 등 공산품에 밀려 짚공예품을 의면하고 있으며 또한 짚공예 조예가 있는 일부 주민들도 고령으로 조만간 명맥유지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짚공예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통 짚공예교실을 7~8월 농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전통 짚공예 교실은 짚공예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1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관내 실내 숲에서 새끼 꼬기, 짚신, 바구니, 멍석 등 전통짚공예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교통질서 캠페인과 현충일 국기달기

바르게살기운동 남양동위원회(위원장 김용자)는 6월중에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및 현충일 국기달기 홍보를 실시하였다.

지난달 2일 오전 8시부터 남양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실시한 교통질서 캠페인에는 '안전띠는 생명 띠, 정지선은 양심선' 등 현수막 및 전단지 배부 하였으며, 제5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국기달기 홍보방송을 전개하였다.

# “희망찬 삶의 터전 일군다”

## 외국인 신부와 들녘 누비며 구슬땀 시어머니, 손녀재롱에 웃음꽃 활짝



정씨 부부가 정든 삶터를 일구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

“고령 농촌.” 젊은이들이 떠나 그 자리엔 노인들만 남아 버거운 농사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오늘 날, 들녘은 깊은 시름에 잠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갓난아이 울음소리 딱 그치지 이미 오래됐고, 그 현장을 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들만 보일 뿐이다.

‘사람이 희망’인 시대에, 농촌은 그 희망이 더욱 절박한 곳이다. 젊은 농군들이 반려자를 찾지 못해 혼기를 놓치기 일쑤고, 아예 결혼을 접는 이들도 적

리는 동네다.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6월 22일 오후, 희뿌연 눈개가 내려앉은 마을에 들어서니 포근함이 감돈다. 정든 고향에 온 느낌이다. 마을회관 뒤, 굽은 밭둑치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정씨 부부 정씨(48)씨와 그의 부인 켈라 아르키네스(40)씨. 정씨는 필리핀 아내를 맞아 고향에서 희망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이다. 정씨는 18세 때 고향을 떠나 서울, 부산, 일본 등지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객지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던 정씨는 늘 마음 한켠에 향수가 자리잡고 있었다. 마침내 1992년, 16년간이란 오랜 타향살이를 접고 고향에 정착한다. 34세때다.

◇안팎일 거드는 아내 위해 투잡스= 정씨는 농사일을 하며 나름대로 삶을 꾸려 갔지만 장가들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정씨도 농촌 농촌각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던 차 우연히 한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필리핀 아내를 맞아들이게 된다. 1999년 5월, 41세의 만혼이었지만 어엿한 가정이 된 것이다. 정씨는 지금도 자식 결혼식과 손자 재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친께 죄스러워했다.

외국인 신부와 생활할 때 말이 통하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는 정씨는 밀월의 부부사랑이란 그 달콤함으로 언어 장벽을 넘어버렸다. 결혼생활 7년이 지난 지금은 원만한 의사소통은 물론 노모(78)를 모시고 7살과 5살난 두 딸을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가정 양식 위주의 농사와 단감농사를 하는 정씨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농사일을 거

들어줘 훨씬 수월하다”며 고마워했다. 정씨는 결혼 이듬해부터 회사 경비일도 하며 농촌을 지키며 뒷밭을 일구고 있다.

◇그들도 내가족·내이웃 깨안아야=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터놓고 이야기 하는 그들 부부의 표정은 해맑았다. 하지만 정씨 부부도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 걱정이요. 과연 훗날 교육이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제다. “우리 가정보다 더 어렵게 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이 많다”는 정씨의 진솔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그들은 한국인의 며느리로서 농촌 미래를 열어가야 할 희망 한국인에 다름 아니다. 다민족·다문화로 열어나가는 농촌에 정씨 부부는 그 희망의 터전을 일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내 고향인 필리핀 일리코스르 들녘을 찾았다. 이곳에선 주로 담배, 양파, 마늘 등을 재배한다.



##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난 5월 31일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이 대거 선출되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역실업자들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선거운동을 하며 상대 후보를 헐뜯기도 하고 헐뜯던 사람 발뺌 공약을 유포하며 당선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어쨌든 당선자는 환호성을 부르짖고 낙선자는 내일을 기약하며 평상심으로 돌아가 일상의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아직 중앙권력에 예속된 느낌이 없진 않지만 지방 자치제가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지자체장의 실질적 능력이 따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에 예산편성이나 업무분장 등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며 나름대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충실하게 하는 편이다.

지자체장이건 지방의원이건 결국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한다. 사소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의 맛에 중독되면 부정이나 비리에 무감각해져 불명예 퇴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공후사, 멸사봉공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개인의 일보다는 전체의 일을 먼저

저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세는 버리고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의 대표로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데 그런 예산이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할 거듭 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정보화·속도화 시대에 임기 4년은 매우 길다. 4년간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소원이다.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꾀하고 돈과 권력의 매력에 빠지는 일이 없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지도층 위치에 있으면 매사가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일거일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염두에 두고 뒷물이 맑아야 앞물이 맑다는 광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할 때 주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고 차기의 선거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해 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떨치는 것은 개인의 입지가 두터워짐은 물론이고 가문의 영광이요 후손에게도 유익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당선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민들이 격양가를 부르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박정도·부천시 사하구 다대2동

##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1)

# 용산리 사지(龍山里寺址) ②

조선 중기 이곳 서봉사에서는 불전(佛殿)을 간행(刊行)하였는데, 그 인본(印本)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599년(선조32)에 간행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언해(諺解)를 비롯하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649년), 운수단가사(1659년) 천지명양(天地冥陽) 수록제(水陸齋) 찬요(纂要, 1659년) 등이 있고 또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판본(版本)이라고 전하며, 국보급(國寶級)의 가치가 될 만한 그 목판이 약 50년 전에 이 사지(寺址)에서 발견(發見)되었으나 모인(某)이 비장(秘藏)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부러 떨어졌는데 그 장군바위는 다술사 입구 숲 속에 목이 잘려진 흔적을 한 채로 지금도 전설을 입증하는 듯 푸른 이끼를 입고 묵묵히 서 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지금의 발 가운데 옛 대웅전(大雄殿) 자리라고 짐작되는 곳에 무덤(墓) 하나가 있는데 이를 사람들은 ‘권진사(權進士) 묘(墓)’라고 일컫는다. 약 30여 년 전인 1970년대에 다술사 종무소에서 일을 보던 박성태(朴成泰) 씨가 증언하는 이 묘에 대한 구전(口傳) 내용을 여기에 적어 보기로 한다.

연대(年代)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곤양군수(昆陽郡守)로 부임한 권보(權某) 군수는 선친(先親) 권진사(權進士)의 묘지(墓地)를 명당(名堂)에 안치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후대까지 입신출세하여 크게 영달(榮達)할 것이라 여겨 명당(名堂) 있는 지사(地師)로 하여금 명지(名地)를 찾으려고 애써 오던 중 서봉사(栖鳳寺) 절터가 대 길지(吉地)임을 알게 되었다. 권군수는 지방 관장(官長)에게 부여된 삼권(三權)의 막강한 힘과 당시 조선의 배불정책(排佛政策)의 여세(餘勢)를 몰아서 서봉사의 승려(僧侶)들이 관가에 항거하려는 음모(陰謀)가 있다는 구실(口實)을 만들어 서봉사를 불태우게 하였다 한다. 막강한 권력행사와 자신의 영달(榮達)에 눈이 어두워진 권군수의 폭정(暴政)으로 인하여 절은 폐허(廢墟)가 되고 폐허된 절터 위에 권군수는 그의 아버지 권진사의 묘(墓)를 안장했다 한다. 이장(移葬) 후 얼마 오래 되지 않아 권군수는 자기가 바라던 부귀영화의 꿈은 고사하고 인망(人望)이 없어져서 서봉사에 불을 질렀다(火災)하여 후손(後孫)마저 절손(絶孫) 되었는지 내내 성묘(省墓)를 하는 후손이 없었다 한다.

1930년도 경 어느 봄날, 버려졌던 이 초라한 분묘(墳墓) 앞에서 80세 가량의 백발(白髮) 노파(老婆)가 슬픔에 잠겨 성묘(省墓)를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인근 노인(老人)들에게 이 노파는 권 군수의 혈육(血肉)이라곤 자기 하나뿐이어서 죽기 전에 성묘(省墓)를 하려고 찾아오게 되었을 말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무덤을 찾는 사람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없었으며, 외손(外孫)되는 집안이 곤명(昆明)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정확하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教訓)은 자신(自身)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천리(天理)를 거역(拒逆)하여 무한(無限)의 탐욕(貪慾)을 부리는 것은 자기 개인 뿐 아니라 한 집안의 종말(終末)을 부르는 비극(悲劇)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발생에 대하여 정확한 연대를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노파의 연령을 비교하여 보고 또 권 군수의 부임일자를 대조해 보아서 조선조 순조대가 이닐까 추측해 본다. 순조대로 짐작하면(1818, 戊寅)부터 순조 19년(1819, 己卯)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는 곤양읍지의 기록이 있고 1930년대에 80세 가량의 노파가 출생한 연대는 1850년대로 볼 수 있으며 이 노파가 권사규 군수의 딸 내지는 손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대로 권사규 군수가 서봉사에 불을 질렀다면 서봉사의 폐사는 1918, 1819년경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규·세무과

## 삼천포초등학교 즐거운 영어 캠프



왼쪽에서부터 'Recreation의 한 순간', 'Making Alphabet game'의 모습이다.

삼천포초등학교(교장 신현권)는 지난달 12일 6학년(120명)을 시작으로 4, 5, 6학년 학생 370여명(신도봉교 포함)이 1박 2일씩 17일까지 사천 학생야영 수련원에서 영어캠프를 시작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로지 영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취사 및 조리활동은 학부모도 우미들을 참여시켜 자녀를 위한 봉사활동의 기회로 삼았다. 또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영어에 대한 현장감을 더했으며,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언어인 영어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하였다.

6월 중순이라 내리쬐는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한 달에 14명 정도도 구성된 8명의 아이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미리 연습한 자기 팀만의 멋진 구호와 팀 노래를 외치며 파이팅을 다짐하는 캠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별 장기자랑에서는 스티커를 받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했다.

물론 그 중에는 영어로 말하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배려하여 수준별로 재미있는 게임 활동을 유도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 주기도 하였다.

모두가 팀워크를 위해 노력하였고, 도저히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Emergency(긴급상황)를 외치면 한글을 쓸 수 있게도 하였다. 또한 영어 골든벨에서는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신념으로 선생님의 영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정말로 대단하였다. 휴식시간까지도 여기저기서 'teacher, teacher' 하며 외쳐대는 아이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우리말에 미안해하는 모습이 진지한 캠프 활동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 번 캠프의 감동을 6학년 소감문을 바탕으로 간추려 보면, 영어 캠프를 다녀와서 습관적으로 엄마에게 영어를 쓰려고 애쓸 경우 점수를 얻어 상품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팀별로는 협동심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활동과 게임에서 이길 경우 스티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영어와 몸짓을 섞어서라도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며, 4가지 코너활동과 팀

## 이 자체가 웃음이며 슬픔이다 연극 "구두코와 구두굽"



▶공연명 : 2006년 찾아가는 예술활동 선정작품 연극 <구두코와 구두굽>  
▶공연시간 : 7. 21(금) 오후 7시 30분 / 22(토) 오후 3시  
▶입장료 : 무료  
▶공연주최 : 사천시  
▶공연주관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극단 박수골  
▶기획의도  
이 작품은 세대간의 사고와 철학의 갈등이 극의 흐름을 주도한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좌충우돌 벌이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개인주의가 민연하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도덕성과 양심에 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극에서 구두코는 빛이 나고 앞으로 솟아오를 만큼 미래 지향적이며, 구두굽은 어렵게 살아온 낡고 낡은 인생의 나이트레의 미하고 있다.

▶작품줄거리  
어느 조그마한 구두방, 짝새, 짝새, 촌새, 영숙은 작은 구두방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삶을 역어 가고 있다. 그러던 중 구두굽 안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백만원짜리 수표.  
짝새, 촌새, 영숙은 백만원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수표가 찢어져 버린다. 서로 수표를 붙이려는 노력들이 한창일 때 짝새가 나타나 수표를 붙여 태우려고 하는데...